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자주통일시대의 민족민주운동의 방향과 과제

박 경 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소장)

4.19가 다가오고 있다. 1960년 4.19혁명이 발발한 지 벌써 45년이 흘렀다. 4.19 혁명발발 45주년을 맞는 올해 2005년은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국사회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낡은 분단질서와 이데올로기가 하부로부터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낡은 것과 새것의 투쟁이 매우 격렬하고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한국사회가 격렬한 진통과 변화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발전과정은 4.19혁명 이후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힘차게 전진해온 민족민주변혁운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새로운 정세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민족민주변혁운동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새로운 모색에 도움이 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1. 현 정세의 기본 특징

현 정세를 자주통일시대, 6.15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자주통일시대, 6.15시대란 무엇인가? 그것은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과거의 낡은 분단 질서와 이데올로기가 붕괴되면서, 민족의 자주와 통일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시대적 쟁점, 과제로 등장한 시대이다. 그리고 광범한 대중들이 민족의 자주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주통일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것은 자주통일운동이 대중화·전면화 되는 시대적 특징을 담아낸 정세규정이다.

6.15시대, 자주통일시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 6.15시대는 자주와 통일의 시대이다

한국사회에서 지난 1980년대는 뛰니뛰니해도 민주화의 시대였다. ‘과소독재 타도와 민주화’가 그 시대의 중심구호였다. 모든 계급계층과 운동대오들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하였으며, 그 방향과 방법을 둘러싸고 사상이론논쟁과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단결의 대상과 투쟁의 대상이 규정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민족자주와 통일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바 아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과제였다.

한국사회에서 지난 1990년대는 과도기였다. 여전히 민주화의 과제가 사회의 중심적인 과제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민족자주와 통일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내내 한총련 이적규정문제가 중심적인 쟁점으로 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과도기적 특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를 가리켜 일부에서는 한국변혁운동의 퇴조기, 혼란기라고 보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면적이고, 지식인 중심적인 관점이다. 분명 87년 대선에서 양김세력의 분열로 군사독재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광범한 국민대중들은 정치적 허탈감과 패배감에 빠져들었고 그것이 변혁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게다가 그 뒤를 이어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전세계적으로 사상적 혼란상태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진보운동에도 영향을 끼쳐, 많은 변혁운동가들이 투쟁전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변혁운동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이 한국변혁운동의 퇴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1990년도는 변혁운동의 퇴조기가 아니라 변혁운동의 새로운 성장발전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80년대까지 지식인 학생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변혁운동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 기층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운동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본격적으로 기층대중이 변혁운동의 정치조직적 주체로 당당히 서서 변혁운동의 중심부대로 부각된 시대가 바로 1990년도이다. 그러나 이런 기층대중운동은 자주와 민주 통일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지는 못했으며, 주로 생존권적 요구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반대 미국 반대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투쟁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자주와 통일운동에 전면으로 나서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반공·반북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한국변혁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6.15

공동선언은 민중의식과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반공반북체제와 이데올로기에 결정적 파열구를 냈다. 광범한 대중들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정신적 포로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그동안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억눌려 있었던 자주적인 사상과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주적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대중들의 자주의식의 성장발전은 한편으로는 새 정치에 대한 대중적 열망으로 표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표출되었다.

그 결과 민족자주와 민족통일문제가 한국변혁운동의 중심적인 쟁점으로 과제가 부각되면서 민족민주운동은 반파쇼 민주화단계로부터 반미자주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은 대중정치투쟁의 중심적 쟁점과 과제가 반미자주와 통일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기층대중운동진영(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자주와 통일투쟁의 조직적 주체로 당당하게 참여하고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6.15시대는 민족공조의 시대이다

우리 민족의 민족자주화 과제는 본질적으로 전민족적 과제이다. 그것은 전민족적 자주역량의 단결된 투쟁의 힘으로 전진해 나가는 투쟁이며, 전 민족적 단결과 단합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그런데 외세에 의한 분단이후 특히 6.25 전쟁이후 남과 북이 각기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 아래서 변혁운동을 수행해 왔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자주화 투쟁에 심대한 한계와 장애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남과 북이 각기 독자적으로 분산적으로 전개하는 반미자주화투쟁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냉전적 남북 대결체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합법적이고 대중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객관적 주체적 조건이 갖추어질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남과 북은 각기 다른 처지와 조건에서 따로따로 민족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독자적으로 전개해 왔다.

6.15공동선언은 기존의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적 남북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적 관계로 바뀌게 됨에 따라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였다. 남과 북 사이에 다양한 접촉과 만남이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사업들이 펼쳐졌으며, 당국간·민간급 대화와 협상, 공동의 행사들이 펼쳐졌다. 여기에서 특히 남과 북의 자주적 통일세력들 사이에 연대와 연합

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남과 북의 민족자주세력들은 비상설적이며 행사준비모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민족공동행사추진위라는 형태로 단결과 단합을 실천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자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단체와 개인들 사이에 수시 접촉과 만남을 통해 공동행동과 연대연합의 틀들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와 농민 등은 남북 상설적인 연대연합의 틀을 합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전 민족적 자주통일역량의 단결단합을 통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화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과 틀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 결과 민족공조가 한국변혁운동에서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다. 남과 북의 민족자주역량이 자주와 통일의 기치 아래 단결단합하여 전민족적 투쟁으로 자주와 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민족공조는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과거 이남의 변혁운동의 역량에 기초해서 수립되었던 변혁운동의 전략전술과 침로는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여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제 민족공조는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요구로 표출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형태와 방식의 민족공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발전되면서 전민족적인 민족자주화투쟁을 추동해 나가고 있다. 6.15시대, 그것은 곧 민족공조의 시대이다.

③ 6.15시대는 대중정치시대, 합법정치시대이다

6.15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광범한 대중들이 정치의 주인 주체로 등장하여 새 정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분출하는 대중정치시대라는 데 있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 오던 가장 핵심적인 암초는 바로 분단체제와 이데올로기이다. 분단시대의 대중들은 반공·반북이데올로기의 족쇄에 얽매어 자신들의 자주적인 정치적 의사와 요구를 표현할 수도, 내세울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광범한 대중들이 정치의 주체로 서기보다는 정치의 객체, 정치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정치는 파쇼와 독재, 특권과 전횡이 판치는 암흑정치가 휩쓸고 있었다.

87년 6월항쟁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화투쟁의 결과 87년 이후 사회의 민주화가 확대됨으로써 대중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적 활동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대중들의 정치적 진출은 반공반북체제와 이데올로기, 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 악법으로 인해 지극히 제한적이며, 불철저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시대적 사상적 역사적 한계는 6.15공동선언에 의해 결정적으로 격파되게 되었다.

6.15 공동선언은 대중정치활동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광범한 대중들이 대중정치활동의 주체로 나섰다. 커다란 장애에 부딪쳐 있었다. 이것은 민중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기 위한 진보정당운동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90년대 민중들은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되기 위한 민중정치세력화(진보정당운동)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해 나가지만 분단체제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장벽에 막혀 제한적이며, 더디게 진척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대중정치활동과 정치적 의사표현방식도 합법적인 방식을 중심으로 전개되기보다 여전히 비합법적 반합법적 방식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6.15공동선언은 바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6.15공동선언으로 반공반북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붕괴되고, 국가보안법이 대중적으로 사문화되면서 합법적 정치활동의 공간과 폭이 급속히 확대되게 되었다.

그 결과 대중정치활동의 영역이 합법적 영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합법적 대중정치활동 공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이데올로기의 장벽에 가로막혀 90년대에는 여전히 비합, 반합법적 대중정치활동이 변혁운동의 중심적인 형태였으며, 합법적 정치활동은 여전히 부차적 보조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것이 6.15 이후에는 합법적 정치활동영역이 대중정치활동의 중심영역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합법정당 활동이 급속히 확대 발전되었다. 6.15공동선언으로 진보적 대중정당 활동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대부분 사라짐으로써 90년대부터 준비해 오던 합법적 진보정당 건설활동이 광범한 대중적 지지와 호응 아래 변혁운동의 중심적인 활동내용으로 부각되었다. 합법적 진보정당의 등장은 변혁운동진영에게 또 하나의 위력한 정치활동과 투쟁의 무기와 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며, 변혁운동은 매우 폭넓고 다양한 활동공간과 수단을 갖춘 대중적이며, 위력적인 운동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2. 6.15시대 변혁운동의 기본 방향

6.15공동선언은 우리나라 변혁운동의 노선과 전략전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6.15시대의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전술의 요체는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은 좌우편향을 범하지 않고 변혁운동의 승리로 나아가는 데 매우 긴급하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변혁운동진영은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모색과 논의를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6.15시대 변혁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대략적인 견해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를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변혁운동은 전국적 변혁운동의 한 부분이다

한국변혁운동의 기본과제는 반미자주화의 실현이며, 중심목표는 민족자주정부 수립이다. 자주 없는 민주는 허구이며, 자주 없이 통일은 없다. 자주야말로 민주주의와 통일의 기본전제이며, 초석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변혁운동의 총체적인 방향과 과제는 철두철미 반미자주화를 지향하고 이를 주된 과제로 내세워야 한다. 이것은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성격인 것이다.

한국사회의 반미자주화는 어떠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는 주객관적 정세와 조건, 그리고 주체역량의 준비정도에 따라 다양한 경로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미자주화 투쟁의 핵심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결코 한미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결코 한국사회에 대한 지배무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북사회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과 침공무력인 것이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사회도 자주적인 사회를 꿈꿀 수 없으며, 이북사회도 자주적인 사회를 완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철수의 과제는 한국사회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북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다.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민족공동운명체로 살아왔다. 주한미군의 강점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분단되었다. 남과 북은 분단으로 인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발전해 나가려는 지향과 요구가 좌절된 상태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와 간섭구조는 단순히 한국사회에 대한 지배구조일 뿐만 아니라 이북사회에 대한 억압구조이며, 칠천만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공동의 적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반미자주화의 과제는 결코 이남사회의 독자적인 과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남과 북을 아우르는 칠천만 민족의 공동의 변혁적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남과 북의 민족자주역량이 연대연합하여 단결하여 투쟁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과제인 것이다. 즉 한국변혁운동의 민족자주화의 과제는 전국적 범위(남과 북)에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와 구조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종속을 끝장내야 실현될 수 있는 전국적 과제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변혁

운동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

물론 우리 변혁운동의 기본목표인 민족자주위업(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자주권의 확립+ 이남에서 민족자주정부 수립+ 이남의 민족자립경제 구축과 민족문화확립)은 자체 내에 지역변혁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국적 변혁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민족자주위업 과제 내에 내포되어 있는 지역변혁의 요소들(민족자주정부 수립, 자립적 민족경제 수립, 주체적인 민족문화 확립)들은 모두 전국적 변혁과제인 전국적 범위에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종속을 끝장내야 실현가능한 과제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변혁운동은 본질적으로 전국적 변혁의 한 부분이다. 즉 지역적 변혁운동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변혁운동을 완전히 독자적인 변혁운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변혁운동의 관점과 입장,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기본적으로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칠천만 민족의 민족자주역량의 단결된 힘과 통일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민족자주화의 과업을 수행해 나가려는 관점과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② 민족공조는 전술적 과제가 아니라 전략적 과제이다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성격상 반미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변혁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전국적 범위에서 변혁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린다는 것은 남과 북의 민족자주역량들이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대동단결하여 투쟁의 주체로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변혁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기본 방도는 민족공조를 튼튼히 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민족공조는 단순히 전술적 과제가 아니라 전략적 과제이다. 즉 민족공조는 변혁운동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이 승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공조를 통해 실천적으로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전에는 민족공조를 통한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이 실천적으로 구축될 수 없었다. 물론 지난 90년대에도 범민련을 중심으로 선진적인 자주통일세력들이 민족공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벌였지만 남북대결구조와 국가보안법의 벽에 가로막혀, 범민련활동이 불법화되고 범민련조직이 정치적 탄압을 받음으로써 대중적 합법적 차원에서 민족공조를 실현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전선이 실천적으로 구축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6.15공동선언으로 완벽한 형태로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

거되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낡은 반공반북이데올로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6.15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반공반북이데올로기는 거의 무력화되었다. 더구나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정부당국자 관계가 과거 대결적 관계로부터 화해협력적 관계로 전화됨에 따라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민족공조를 위한 활동과 투쟁을 탄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구체적 조건 아래서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은 합법적이고 대중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민족공조를 위한 활동과 투쟁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우선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6.15 공동선언은 극소수의 사대매국세력만이 반대하였으며, 절대다수의 칠천만 민족의 절대적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그로부터 당국간, 민간, 각계각층을 가릴 것 없이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남북화해협력과 공존공영, 민족의 단결과 단합,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활동과 투쟁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대북적대의식이 극복되면서 우리민족끼리의 사상과 정신이 급속히 확대발전되었으며, 이것이 민족공조의 사상적 기초로 되었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연대연합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고한 조직적 단결로 까지 발전시켰다. 우선 남과 북, 민간 통일운동세력들이 민족공동행사를 치르기 위해 만든 비상설적인 행사준비모임은 남북공동행사 추진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단순히 공동행사준비만이 아닌 공동의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조직인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준비위'를 결성함으로써 민족공조의 공고한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노동자·농민·청년학생, 종교예술인 등 각계각층 대중단체들은 계급계층별로 남북 사이 계급계층별 연대연합운동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강화발전시켜 왔으며, 그것들은 조직적인 단결로까지 상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민족공조를 위한 활동과 투쟁은 단순히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활동과 투쟁에 국한되어 펼쳐지지 않았다. 남과 북 칠천만 민족자주세력들은 미국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반미민족공조의 활동과 투쟁을 적극화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과정 속에서 형성, 발전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 아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압박한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남과 북 칠천만 민족이 단결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공조는 민족자주위업수행을 위한 반미민족공조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전선이 실천적으로 구체화되어 나가고 있다. 이로써 민족자주위업완수를 위한 주체역량이 성숙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한국의 변혁운동은 발전해 나가고 있다.

③ 한국변혁운동의 상대적 독자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한국변혁운동은 전국적 변혁운동의 한 부분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 관점과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한국변혁운동의 독자적 성격을 주목해야 한다. 전국적 과제와 지역적 과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되며, 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의 형성과 성장발전의 독자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수립의 독자적 성격에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서 좌우경적 편향을 지극히 경계해야 한다.

한국의 변혁운동은 전국적 민족자주역량의 단결과 통일적인 전략에 기초한 반미자주화의 실현을 전략적 중심으로 확고히 세우면서도, 민족자주정부수립이라는 지역적 변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이에 기초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편향 없이 설정하고 통일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한국내 대중운동의 발전정도와 상태를 주체적으로 고려하고, 한국 대중운동의 요구와 투쟁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의 형성강화과정의 독자성을 주목하고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변혁운동은 다양한 요구와 과제를 통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체역량이 가장 빠르게 성장발전하고 변혁운동의 질과 내용이 풍부화되고 변혁운동이 질적으로 도약해 나가게 된다. 그런데 전국적 변혁과제 수행이라는 것만을 절대적으로 내세우게 되면 변혁운동의 주체역량 성장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전국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민족공조강화발전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변혁운동(한국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의 구체적 현실과 조건에 기초해서 민족공조를 수행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의 변혁운동은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영역 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투쟁영역이 존재하며, 대중들의 요구와 지향도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중의식의 발전 정도도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구체적 현실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여 주체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민족공조를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실의 대중정치투쟁전선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펼쳐져 있으며, 한국변혁운동

대오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대중정치투쟁전선을 통일적으로 책임져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전선을 포함한 다양한 대중정치투쟁전선을 통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조직적 주체가 확고히 서야 한다. 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결을 보장하고 투쟁을 책임지고 전개해 나갈 조직적 틀이 부재하게 되면 단결과 투쟁은 일회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대중정치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적 주체는 자주민주 통일을 기치로 내건 큰 덩어리의 통일전선체이다. 이것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건설은 시급한 정치조직적 과제이다.

④ 합법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강화해야 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열리기 시작한 합법적 정치활동공간은 6.15공동선언 이후 더욱더 폭넓고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으로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벽이 붕괴됨으로써 노동자 대중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와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주적인 정치적 견해와 주장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파쇼적 억압체제는 이제 거의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대중들의 정치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낡은 분단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자주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대중적 흐름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표출되고 있다. 지금 붓물처럼 터져나오는 대중들의 새 정치에 대한 열망과 투쟁들은 바로 이러한 흐름이 얼마나 강렬하게 형성발전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처럼 대중정치생활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정치활동의 양상이 전면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중정치활동의 중심적인 형태와 방법도 과거 반합법적 대중정치투쟁중심에서 합법적 대중정치활동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국의 변혁운동은 바로 이러한 정세와 대중운동의 변화발전을 주목하고 대중정치활동의 중심적 무대로 등장한 합법적 정치활동공간을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은 바로 이러한 대중정치활동양상의 변화발전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대중정치활동공간이 확대되는 현실에 대한 대중자신들의 자주적인 대응인 것이다. 즉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은 변혁운동가들이 대중들에게 제시한 전략전술적 조치 이전에 대중 자신들의 자발적인 운동인 것이다. 대중자신들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온 대중운동의 한 형태라는 점이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에서 지적되어야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국의 변

혁운동가들은 대중자신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대중운동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진보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은 대중 자신들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대중 자신의 운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측면 외에도 한국변혁운동의 노정과 전략전술적 견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이 변혁운동적 견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합법적 정치조직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정권전취를 직접적 목표로 내세우는 정당운동이라는 점이다.

한국변혁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강화발전시키는 데 핵심은 광범한 대중들은 반미자주화를 목표로 한 대중정치투쟁의 주인 주체로 내세우는 데 있다. 광범한 대중들이 정치투쟁의 주인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정치의식화 조직화 정치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 수많은 대중들을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도는 운동의 합법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합법적 운동은 그것이 갖는 자체의 특성상 가장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대중들을 결속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운동의 발전과정은 곧 운동의 합법성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합법정당운동은 그것이 갖는 합법적 성격으로부터 가장 광범위하고 폭넓게 대중정치의식화 조직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가장 광범위한 대중들을 정치활동과 투쟁으로 인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

한국변혁운동이 승리하려면 다음으로 대중운동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정치투쟁도 개별적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정권타도와 정권전취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정치투쟁과 활동의 가장 높은 형태는 낡은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전취하는 정권장악투쟁이다. 그런데 정당운동은 그 본질상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내세우는 정치투쟁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투쟁은 정당운동의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합법정당운동은 정치투쟁의 가장 높은 형태인 정권장악을 직접적인 목표로 내세우는 정치활동이며, 정치운동이다. 비록 합법이라는 형태가 갖는 근본적인 제한성이 있다하더라도 대중정치투쟁이 정당운동의 형태로 나아간다는 것은 변혁운동의 질적인 도약과 발전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변혁운동가들은 현재의 환경과 조건을 잘 타산하고 합법정당운동

이 갖는 위력적인 힘을 직시하여, 주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합법적 진보정당을 건설 강화하기 위한 진보정당운동에 앞장 서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현 시점에서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은 민족민주전선을 건설강화하는 데에 있어서도 핵심고리로 된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현 한국변혁운동에서 자주민주통일을 기치로 한 민족민주전선을 건설강화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민족민주전선을 시급히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쉽고 절박한 것은 민족민주전선 건설하고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주체를 세우는 문제이다. 현재 민족민주전선건설을 자신의 중심적 과제로 내세우고 책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 하고 그럴 만한 정치적 힘과 역량이 구축되지 않아 민족민주전선 건설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조직적 주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현 한국변혁운동의 실정상 그것은 오로지 합법적 진보정당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 합법적 진보정당의 그 본질적 성격상 정권장악을 직접적 목표로 삼고 있는 정치적 조직이다. 따라서 일상적 정치활동과 투쟁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심적인 활동이다. 그러한 점에서 민족자주위업 실현을 위한 민족민주전선의 기본사명과 일치하고 정치투쟁을 일상적 활동으로 내세우는 정치투쟁조직이라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민주전선 건설과 강화사업을 중심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관철해 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다.

3. 당면 정세와 정치적 과제

현재 한국변혁운동, 더 나아가 칠천만 민족의 운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자주와 통일을 민족주체의 힘, 민족공조의 힘에 의해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우리민족의 활동과 투쟁으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이데올로기가 뿌리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그에 따라 남북 분단체제에 기초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놀란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흐름을 차단하고 낡은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근본적으로 이북체제와 제도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공격의 예봉을 이북을 향해 돌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대북붕괴전략에 매

달리고 있다.

미국의 대북 붕괴전략에 기초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6.15공동선언 이행투쟁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민족공조가 중대한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 책동으로 인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전쟁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족공멸을 불러올 핵전쟁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며, 미국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민족공조를 강화하여 자주와 통일을 전진시키는 과제가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은 정견과 주의주장, 계급계층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6.15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대동단결하여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전선을 실천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대결전선에서 승리하여야 전쟁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할 수 있으며,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와 통일의 새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